

SK, 전기자동차 전지 3각벨트 구축

대덕 기초기술-증평 분리막-서산 생산 ... 2011년 2000억원 투자 계획

충남 서산시가 SK이노베이션의 서산일반산업단지 입주와 함께 미래 에너지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.

서산시에 따르면, SK그룹은 최근 전국 9곳에 친환경-바이오-신소재 인큐베이팅 벨트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.

서산과 대덕, 충북 증평을 잇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3각 벨트를 형성해 대덕 SK글로벌테크놀로지서서 기초기술을, 충북 증평에서 배터리 분리막(LiB)을 담당하고 서산에서는 친환경배터리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.

SK이노베이션은 3월 말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일대 서산일반산업단지 오토폴리스에 터를 잡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.

입주면적 23만1000㎡ 가운데 우선 5만㎡에 대한 공장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2011년 가을 1차 공사 완공과 함께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2011년 2000억원대 투자와 300-500명 가량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충남발전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이 서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앞으로 5년간 1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명 고용창출, 6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4/07>